

한국인 6대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 관련 연구논문 분석

박 정 숙* · 오 윤 정** · 장 희 정***
최 영 희**** · 박 은 이****

I. 서 론

간호학의 발전과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간호현상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Lee et al, 1992). 따라서 연구논문들을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연구경향을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호연구 방향 설정에 지침이 될 수 있다.

암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질병중의 하나로서,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 즉, 연령, 성별, 사회, 경제, 문화적인 배경을 총망라하여 발생한다. 2000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의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이 한국인 사망순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진단기술의 발달, 조기진단과 중재, 새롭고 정밀한 치료법, 환경내의 발암물질 증가 등으로 인해 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암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하기가 어렵고,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이 많으며, 삶의 질이 저하되고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채로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근래에 와서 생활양식의 변화나 화학적 예방(chemoprevention)을 통한 암의 예방이나 규칙적인 검진 등을 통한 암 조기발견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암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주로 치료 또는 간호와 관련된 것이며,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암은 일단 발생하면 근본적인 치유가 어렵기 때문에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대단히 중요하며(WHO, 1996), 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실시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비부담을 낮출 수 있어 비용 효과면에서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2000년대에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5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암 예방과 조기발견의 홍보 교육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Lerman, Rimer & Engstrom, 1989; Genovese & Wholihan, 1995).

암과 관련된 간호연구논문 분석으로는 1985년부터 1997년 2월까지 178편의 분석과, 실험연구 25편을 분석한 Lim과 Hong의 연구(1997-a, 1997-b), 1980년에서 1998년 2월까지 149편을 분석한 Choi 등의 연구(1998)가 있으며, 국외에서는 1981년부터 1990년 사이의 428편을 분석한 Smith와 Stullenbarger(1995)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암에 대한 전반적 연구동향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암 예방과 조기발견 관련 논문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구체적인 분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거창전문대 간호과 교수
*** 거창전문대 시간강사
**** 동산의료원 간호사

석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1980년부터 2001년 6월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 분석하여 연구주제,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파악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암 예방과 조기발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II. 연구 방법

1. 표본(연구대상 논문)의 선정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1년 6월까지 21년 6개월 동안 간호학자, 의학자, 보건학자에 의해 연구된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을 표본으로 하였다. 간호학에서는 대한간호협회에 등록된 한국 석, 박사 학위논문 목록, 보건연구 정보센터 site인 rich에 등록된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술논문집, 간호학회지 및 간호학 분과 학회지(성인간호학회지, 기본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 여성건강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의학에서는 가정의학회지, 예방의학회지, 암예방학회지, 대한암학회지 및 각 의학과 학회지의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논문목록과 학위논문 목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보건학에서는 보건연구 정보센터 site인 rich에 등록된 보건관련 학회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암 예방과 조기발견이라는 개념이 논문제목에 나타난 논문들을 목록화한 뒤 논문원본을 찾아 해당개념이 있는가를 확인하여 분석하였으며, 제목에 직접 암 예방이나 조기발견의 개념이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문헌고찰 결과 발견된 논문들과, 폐암의 경우 금연프로그램, 금연교육, 흡연교육에 관한 개념이 들어있는 논문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97편의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대상 논문분석

선정된 논문들의 연구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도별, 주제별, 연구설계별, 학회지별, 암종류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도별 : 5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2) 주제별: 암 예방, 암 조기발견, 혹은 암 예방+조

기발견으로 구분하였다.

3) 연구설계별 : 양적 연구와 기타(문헌고찰, 종설, 질적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양적 연구의 경우는 다시 조사연구와 실험연구로 구분하였다.

4) 학회지별 : 간호학, 의학, 보건학으로 구분한 뒤, 각각 게재 학술지를 목록화하였으며, 학위논문은 석사와 박사학위논문으로 분류하였다.

5) 암 종류별 : 한국인의 6대 암 즉 위암, 폐암, 간암, 직장·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해당되는 논문을 예방, 조기발견,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구분하였다.

6) 암 종류별 주요개념과 연구결과 : 암, 위암, 폐암, 간암, 직장·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해당되는 논문을 먼저 학문분야로 구분한 뒤, 각각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였고, 각 논문의 주요개념과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도별 빈도분석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 편수를 먼저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5~1999년에 49편(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00년~2001년 6월까지 21편(21.6%), 1990년~1994년에 14편(14.4%), 1985년~1989년에 10편(10.3%), 1980년~1984년에 3편(3.1%)의 순이었다.

연도별에 따라 게재된 논문을 암 종류별로 다시 살펴보면, 전반적인 암 논문(2개 이상의 암을 다룬 논문)은 1995년~1999년에 4편, 2000년~2001년 6월까지 2편이었고, 위암 논문은 1990년~1994년에 3편, 1995~1999년에 6편, 2000~2001년 6월까지 7편이었으며, 폐암 논문은 1980년~1984년에 1편, 1985년~1989년에 2편, 1990년~1994년에 3편, 1995년~1999년에 11편, 2000년~2001년 6월까지 6편이었다. 간암 논문은 1980년~1984년에 1편, 1985년~1989년에 8편, 1990년~1994년에 2편, 1995년~1999년에 6편이었고, 직장·대장암 논문은 1990년~1994년에 2편, 1995년~1999년에 3편이었으며, 유방암은 1980년~1984년에 1편, 1990년~1994년에 4편, 1995년~1999년에 15편, 2000년~2001년 6월까지 5편이었고, 자궁경부암은 1995년~1999년이 4편, 2000년~2001년 6월까지 1편이었다(Table 1).

〈Table 1〉 연도별 빈도분석

연도	암종류	암*	위암	폐암	간암	직장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계(%)
1980~1984				1	1		1		3(3.1)
1985~1989				2	8				10(10.3)
1990~1994			3	3	2	2	4		14(14.4)
1995~1999		4	6	11	6	3	15	4	49(50.6)
2000~2001		2	7	6			5	1	21(21.6)
계(%)		6(6.2)	16(16.5)	23(23.7)	17(17.5)	5(5.2)	25(25.7)	5(5.2)	97(100.0)

* 암 : 5대암(위암, 폐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2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1편), 유방암, 자궁경부암(2편),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1편)

2. 연구설계별 빈도분석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 편수를 연구설계별로 살펴보면, 조사연구가 54편(5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실험연구 34편(35.0%), 기타(문헌고찰, 종설) 9편(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에 따라 게재된 논문을 연구설계별로 다시 살펴보면, 전반적인 암 논문은 조사연구 4편, 실험연구 2편이었고, 위암 논문은 조사연구가 12편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 2편, 기타 2편이었으며, 폐암 논문은 조사연구 10편, 실험연구 10편, 기타 3편이었다. 간암 논문은 실험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연구 6편, 기타 2편이었고, 직장·대장암 논문은 조사연구 3편, 실험연구 2편이었으며, 유방암 논문은 조사연구가 14편으로 가장 많았고, 실험연구 9편, 기타 2편의 순이었다. 자궁경부암 논문 5편은 모두 조사연구였다(Table 2).

3. 학회지별 빈도분석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 편수를 먼저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간호학 관련논문 47편(48.5%), 의학 관련논문 46편(47.4%), 보건학 관련논문 4편(4.1%)이 게재되었다. 간호학관련 논문은 석사논문이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의학관련 학회지로는 한국역학회지에 10편의

암 예방 및 조기발견 논문이 게재되어서 가장 많은 편수였다.

암 종류에 따라 게재된 학회지 혹은 학위논문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암 논문은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이 2편이었고, 위암 논문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에 4편, 폐암 논문은 결핵 및 호흡기질환에 4편, 간암 논문은 한국역학회지에 8편; 직장·대장암 논문은 간호과학, 대한간호학회지, 가정의학회지, 한국노화학회지, 한국역학회지에 각각 1편씩, 유방암 논문은 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5편, 자궁경부암 논문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예방의학회지, 보건협회학술지, 한국보건교육학회지에 각 1편씩 게재되었다(Table 3).

4. 암 종류별 연구주제 빈도분석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 편수를 연구주제에 따라 살펴보면, 예방이 50편(51.5%), 조기발견이 43편(44.4%), 예방+조기발견이 4편(4.1%)으로 나타났으며, 암 종류별로 연구주제를 다시 살펴보면, 전반적인 암 논문은 조기발견 3편, 예방+조기발견 3편으로 나타났으며, 위암 논문은 예방 12편, 조기발견 4편이었다. 폐암 논문은 예방이 2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기발견이 1편이었다. 간암 논문은 예방이 13편, 조기발견이 4편이었고, 직장·대장암 논문은 예방 3편, 조기발견 1편, 예방

〈Table 2〉 연구설계별 빈도분석

연구방법	암종류	암	위암	폐암	간암	직장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계(%)
양적연구									
조사연구		4	12	10	6	3	14	5	54(55.7)
실험연구		2	2	10	9	2	9		34(35.0)
기타(문헌고찰, 종설)			2	3	2		2		9(9.3)
계(%)		6(6.2)	16(16.5)	23(23.7)	17(17.5)	5(5.2)	25(25.7)	5(5.2)	97(100.0)

+조기발견 1편이었다. 유방암 논문은 25편 모두 조기발견에 대한 것이었고, 자궁경부암 논문도 5편 모두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이었다(Table 4).

전반적인 암을 다룬 논문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 논문에서는 암 예방과 조기발견 교육에 관한 논문이 3편이었고, 정기검진 실천에 관한 논문이 1편이었으며, 의학 논문에서는 금연과 조기발견 1편, 조기검진 영향요인 1편이었다(Table 5-1).

위암 논문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 논문에서

5. 암 종류별 주요개념 분석

〈Table 3〉 학회지별 빈도분석

학회지별		암종류	암	위암	폐암	간암	직장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계(%)
간호학	간호과학						1			1(1.0)
	간호학 탐구				2			1		3(3.2)
	경북간호과학지		1			1		1		3(3.2)
	기본간호학회지							1		1(1.0)
	대한간호					1				1(1.0)
	대한간호학회지				2		1	2		5(5.2)
	성인간호학회지		1	1				4		6(6.4)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	1	2(2.0)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			5		6(6.4)
	충남대학교 간호과학논문집							1		1(1.0)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					1(1.0)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		1(1.0)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					1(1.0)
	학위논문(석사)		2	3	1			4		10(10.2)
학위논문(박사)				3			1	1	5(5.2)	
의학	가정의학회지				2		1	2		5(5.2)
	결핵 및 호흡기질환				4					4(4.0)
	대한소화기학회지			2						2(2.0)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지			4						4(4.0)
	대한신생아학회지					1				1(1.0)
	대한암예방학회지			2	1					3(3.2)
	대한암학회지			1	1					2(2.0)
	대한의과학회지							1		1(1.0)
	대한의학협회지			1						1(1.0)
	보험의학회지					1				1(1.0)
	예방의학회지				2	4			1	7(7.4)
	한국노화학회지						1			1(1.0)
	한국역학회지				1	8	1			10(10.2)
	보건협회학술지			1		1			1	3(3.2)
학위논문(박사)			1						1(1.0)	
보건학	건강증진학회지		1		1					2(2.0)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					1		2(2.0)
계(%)			6(6.2)	16(16.5)	23(23.7)	17(17.5)	5(5.2)	25(25.7)	5(5.2)	97(100.0)

〈Table 4〉 암 종류별 연구주제 빈도분석

연구내용	암종류	암	위암	폐암	간암	직장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계(%)
예방			12	22	13	3			50(51.5)
조기발견		3	4	1	4	1	25	5	43(44.4)
예방+조기발견		3				1			4(4.1)
계(%)		6(6.2)	16(16.5)	23(23.7)	17(17.5)	5(5.2)	25(25.7)	5(5.2)	97(100.0)

는 위암의 위험요인 비차비 연구 2편,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2편이었고, 의학 논문에서는 H. pylori 관련연구 4편, 관련요인 2편, 위암 발생위험도 평가 1편, 된장의 항 발암효과 1편, 위내시경 1편, 화학

적 예방 1편, 원인과 예방 1편, 선별검사 1편이었다 (Table 5-2).

폐암 논문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 논문에서는 금연교육 및 프로그램이 8편, 흡연예방교육 1편, 금

<Table 5-1> 주요 개념별 분석-전반적인 암

구 분		주요개념	연구결과
학문분야	내 용		
간호학	예방과 조기발견	암 예방과 조기발견 교육	· 5대암예방과 조기발견 교육군: 암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음 암에 대한 태도와 예방적 건강행위점수 유의한 차이없음 · 5대암에 대한 지식수준 낮음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태도나 예방적 건강행위는 바람직한 결과 · 암의 원인, 초기증상, 조기검진 방법과 시기 등을 알고 싶어함
	조기발견	정기검진 실천	· 연령, 월수입에 따라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사를 모두 받은 여성, 유방암 검사만 받은 여성, 두 검사 모두 받아보지 않은 여성간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검진실천율에 차이 있음
의 학	조기발견	금연과 조기발견	· 인체매체를 통한 보건교육: 인쇄물만으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방암 자가검진법이 가장 효과적
		조기검진 영향요인	· 여성암 조기검진에 관한 검진취약대상: 50대 이상의 고연령 집단 및 중졸이하의 저학력집단, 저소득계층, 독신계층

<Table 5-2> 주요 개념별 분석-위암

구 분		주요개념	연구결과
학문분야	내 용		
간호학	예방	위암의 위험요인	· 남성의 경우 돼지고기 섭취 회수가 적은 사람에 비해 많은 사람의 위암발생 비교위험도 1.9배, 흡연과 음주는 통계학적 유의성 없음 · 여자의 경우 과일이 위암의 방어효과 있음, 짜게 먹는 군의 위암발생의 비차비 높음 · 남자의 경우 단백질과 철분을 많이 섭취하는 군 위암발생의 비차비 높음
	조기발견	위암의 위험요인	· 비디오 프로그램 정보제공: 위암조기 발견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변화 효과적 · 택시운전기사대상 위암 조기발견 관련 검사: 고위험군 51명 색출, 위내시경검사 32명 실시, 위암환자 1명, 궤양환자 12명, 만성위염환자 10명 발견
의학	예방	화학적 예방	· 위암의 대부분은 만성위염의 배경으로 발생됨, 만성 위염의 70~80%는 H. pylori의 감염과 관계 있음
		원인과 예방	· 식생활의 조절에 의하여 위암발병을 예방가능, 또한 조기진단 및 치료로 일컬어지는 이차예방의 효과 큼
	관련요인	· 위암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변수: 두부, 상부위장관조영술 회수 등 감소시키는 변수: 음주, 채소류, 냉장고 사용 기간 등	
	위암 발생의 위험도 평가	· GSTM1, GSTT1, L-myc 등의 유전자 다형성은 흡연, 음주, 식이 요인과 관련하여 위암발병 민감도를 변화시킨	
	된장의 항발암 효과	· 된장: 면역 증강효과 및 항암효과	
	H. pylori VacA의 역할	· 한국인에서 H. pylori VacA의 감염은 위암의 발생과는 연관이 없었음 · H. pylori IgG 혈청학 검사: 40세 이하 소화 불량증 환자에서 비례양성 소화불량증을 예측할 수 있는 선별 검사로 유용 · H. pylori 균의 유전자 보유 유무 및 세포독소 생성 유무와 내시경적 소견과는 유의한 상관관계 없음	
	조기발견	발병요인	· 식이요인중 생선국/찌개, 된장국/찌개, 고추장국/찌개 등과 생선구이, 젓갈류, 김치류, 소금, 고춧가루: 위암발병 증가 녹두부침, 두부, 양배추, 시금치, 고기전과 참기름: 위암발병 감소
	위내시경 선별검사	H. pylori	· 소화기계 증상이 없는 건강인에서도 이상 소견율이 높았음 · 위암 선별검사로: H. pylori, IgG, alarm 양성, 소화불량 등 · H. pylori 항체에 대한 혈청학적 검사: 소화성 궤양 및 위암의 선별 검사로서의 유용성 낮음

연행위 1편, 자기조절 효능감 증진프로그램개발 1편이었고, 의학 논문에서는 금연교육 및 프로그램 4편, 흡연상태 2편, 위험인자 1편, 간접흡연 2편, 녹차 1편, 주증상 1편이었고, 보건학은 공익광고에 관한 논문이 1편 게재

되어있었다.<Table 5-3>.

간담 논문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 논문은 2편 모두 예방교육에 관한 것이었고, 의학은 교육이 4편, 간담 예방접종관련논문 7편, 간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검

<Table 5-3> 주요 개념별 분석-폐암

구 분		주요개념	연구결과		
학문분야	내용				
간호학	예방	금연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프로그램의 장기효과: 30.2%가 금연에 성공 · 범이론적 모델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 실험군의 소변 코티닌 양과 1일 평균담배량 유의하게 감소 · 금연프로그램 실시: 금연성과 11%, 프로그램 실시 전, 후 건강연령 27.7세에서 27.1세 낮아짐 ·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 일일 흡연량과 니코틴 의존도가 니코틴 패취군과 대조군보다 낮음 		
		흡연예방교육	·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지식수준 높임, 태도 변화없음		
		금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교육 프로그램: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지식수준 높임, 흡연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인터넷 탐색과 비디오 시청에 의한 금연교육: 인터넷 교육을 받은 여자 반만 교육후에 지식의 점수 증가, 태도 점수는 변화없음 · 인터넷교육군과 비디오교육군: 두군의 금연태도와 흡연행위에는 차이가 없음 		
		금연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교육군에서 금연지식 약간 증가 · 여대생의 금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종교, 금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성역할 고정관념, 흡연기간, 흡연에 대한 태도 		
		자기조절효능감	· 청소년대상 자기효능 정보근원 이용하여 자기조절효능감 증진전략: 자기조절 효능감 정도		
		증진프로그램	상승→흡연율을 감소		
		다학제간	· 효능기대 증진 프로그램을 이용한 금연교육과 강의위주의 금연교육의 효과 비교 분석: 교		
		생활금연 프로그램	육 4주에는 자기효능감, 소변 코티닌 정도, 자가보고 흡연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교육 12주에는 자기효능감과 소변코티닌에서 유의한 차이있음		
		의학	예방	금연교육	· 단기적인 금연교육의 효과: 통계적 유의성 없음
				금연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연프로그램을 실시직후: 37.4% 금연 성공, 금연성공률은 여자고등학생에서 높았고 남자 고등학생에서 가장 낮았음 · 흡연은 중독성이 있고 금연 시 금단증상이 나타나고, 금연은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힘들 · 역학적인 보고: 흡연과 폐암사이에는 관련성 있음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은 여러 가지 암 발생에 관련된 위험요인, 전체 암 사망의 30%는 흡연때문인 것으로 추정 · 흡연자: p53유전자 변이 증가, 흡연량이 증가할수록 p53유전자 변이의 비율도 증가 				
위험인자	· 폐쇄성환기장애가 있는 경우가 폐암군에서 23.4%로 양성군의 3.8%에 비해 많음				
간접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금연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금연할 것을 더 권고하고, 행동변화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 · 환기가 불량한 좁은 실내에서는 간접흡연자는 흡연자의 약 3/4 또는 그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추정됨 				
녹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자가 녹차를 3컵/1일/6개월 섭취시 SCE(Sister-chromatid exchange)의 빈도는 7.94 ± 0.31, 비흡연자는 7.03 ± 0.33, 흡연자는 9.46 ± 0.46임 				
조기발견	주증상			· 병원을 찾아간 주증상: 객혈이나 흉통의 경우는 진단이 쉬웠고, 객담 및 기침, 호흡곤란의 경우 진단이 지연됨	
보건학	예방			공익광고	· 공익광고를 통한 금연교육: 호의적, 인기인의 기여도 60%이상, 흡연예방 효과 높음

사관련 논문이 4편이었다(Table 5-4).

직장·대장암을 다룬 논문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 논문은 건강신념 및 검사수검경험이 1편, 대변잠혈검사를 이용한 조기발견관련논문이 1편이었고, 의학에서는 직장·대장암예방을 위한 식생활연구 2편, 보건학에서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연구가 1편 이루어졌다(Table 5-5).

유방암 논문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 논문 22편, 의학논문 3편으로 간호학 논문이 월등히 많았다. 연구주제별로 보면 간호학 22편, 의학 3편이 모두 조기발견에 관한 내용이었다. 간호학논문은 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7편, 유방암 위험사정과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

그램 1편,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6편, 유방자가검진 영향요인 4편,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요구사정 2편, 유방조영술 검진참여 1편, 유방암 조기발견 비용-효과 1편이었고, 의학 논문은 유방자가검진 프로그램 1편, 조기검진 1편, 지식, 태도, 실천이 1편이었다(Table 5-6).

자궁경부암 논문의 주요개념들을 살펴보면, 간호학 논문이 2편과 의학 논문 1편은 모두 pap 도말검사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였고, 보건학 논문 2편은 pap 도말검사를 받은 여성 비율과 검사를 받지 않은 위험군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였다(Table 5-7).

〈Table 5-4〉 주요 개념별 분석-간암

구분		주요개념	연구결과
학문분야	내용		
간호학	예방	교육	· 구조화된 환자교육: B형 간염에 대한 지식과 자가간호수행율 증가
의학	예방	교육	· B형 간염에 대한 지식정도: 낮음, 지식의 인지도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간질환의 과거력과 상관관계 있음, 간염전파에 대한 태도는 지식의 정확도, 인지도와 상관관계 있음, 예방접종 및 치료에 대한 태도는 모의 교육수준과 인지도와 관계 있음
		예방접종	· 원발성 간암은 알콜의 양과 관련 있음 · 병원근무자의 비늘침 상해발생과 B형 간염과의 관련성: 간호사, 의사, 조무사, 임상병리기사의 순으로 바늘침 상해 많이 발생 · 2kg이하 미숙아에서 0.1,6개월에 예방접종 하였을 때 항체 양성율 69.6% · 사업장 B형 간염 예방접종 후 67.2%에서 항체 발현, 성별, 나이, 백신종류, 혈액형, 흡연 등에 따라서 영향 받음 · 항체 발현율은 3회 접종한 그룹이 2회 접종한 그룹보다 높았음 · 모의 항체 양성율은 아동의 B형 간염에 중요한 요인, 항체 발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음, 예방접종 15개월 후 항체발현율이 90-92.5% 됨
	조기발견	간질환	· 간암진단 5년 혹은 그 이전에 간질환이나 간질환의 가족력있는 경우 많음 · 구리농도치 혹은 구리-아연비율 측정: 간질환을 진단할 수 있음, HBV, HCV는 HCC와 관련 있음

〈Table 5-5〉 주요 개념별 분석-직장·대장암

구분		주요개념	연구결과
학문분야	내용		
간호학	예방 및 조기발견	건강신념, 검사수검경험	· 자신의 건강행동이 암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적극적 건강신념: 젊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미혼에서 높게 나타났음 · 구미와 비교하여 직장수검검사, 대변잠혈검사, 대장경, S상 결장경검사 수검율이 낮음
	조기발견	대변잠혈검사	· 대변잠혈검사를 실시해 대장직장암발생의 위험도를 저,중,고로 알려주는 처치: 다음 해에 대변잠혈검사의 수검율이 높아짐
의학	예방	식생활	· 위장관 암의 발생경향: 육류중심의 서구화된 식생활에서 기인함,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지방식이섭취가 많은 쥐: 대장암의 발생 많음
보건학	예방	건강교육프로그램	· 성별과 직업에 따라 대장암의 첫 번째 증상인지 지연이 달라짐

(Table 5-6) 주요 개념별 분석-유방암

구분		주요개념	연구결과
학문분야	내용		
간호학	조기발견	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자가 검진 교육 방법에 따른 지식, 태도 변화: 모형을 이용한 시범, 비디오 테이프, 인 쇄물 중에서 모형을 이용한 시범이 가장 효과적 · 유방 자가검진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한 간호정보제공: 유방자가검진 지식 및 태도에 효과적 · 유방 자가검진 집단 교육 후 재교육 시기: 1개월 후와 2개월 후로 나누어서 유방자가검진 재교육을 실시한 결과 1개월후에 더 높은 점수나타냄 ·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유방자가검진 능력 증진,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자가검진 능력이 증진 · 유방자가검진 교육: 지식과 자기효능 증진→자가검진 능력 향상 · 유방자가검진 교육: 교육 후 유방자가검진 빈도와 자기 효능점수 증진 · 유방자가검진 교육: 교육 후 유방자가검진 빈도와 유방자가검진 숙련도 증가
		유방암 위협사정과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 자가검진 교육: 지식 증진→ 유방자가검진을 실행에 옮기는데 유방암 위협 사정이 행 동계기로서 유방자가검진 실행률 높일 수 있음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학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간에 상관성있음 · 2/3의 대상자는 최소한 한달에 한번씩, 1/3의 대상자는 일년에 3-4번씩 자가검진시행 · 자가 몽우리 발견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이 실천정도를 27.5% 설명 · 간호사의 유방 자가검진 실천 정도: 유방 자가검진 방법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 14.5%, 지난 6개월 동안의 유방 자가검진 횟수 11.2%, 유방암의 가족력 유무 8%를 설명 · 유방자가검진 및 유방암 관련 지식과 유방 자가검진 수행정도는 정적 상관관계 · 보건소 간호사의 유방암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유방 자가검진 실천율과 교육실시율이 높게 나타남,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를 높게 생각하는 군에서 유방 자가검진 실천율과 교육실시율이 높게 나타남
간호학	조기발견	유방자가검진 영향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 자가검진 이행: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건강신념이 높을수록, 장애성 인지가 낮을수록, 행동의 계기가 되는 자극이 많을수록 이행을 높음 · 유방 자가검진 이행: 유방암 환자를 만난 경험, 건강신념의 심각성, 구체적 자기효능이 영향을 미침 ·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행 정도: 저조, 실행에 옮기더라도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음,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가장 많았음 · 유방자가검진 이행자: 민감성, 심각성, 유익성, 유방암에 대한 지식 및 건강관심도가 비이행자보다 높았음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자가검진 교육에 참여 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 유방암에 대한 지식 중 호발 연령, 발생빈도, 예후 및 조기발견에 관한 지식 있음 유방암 예방, 검진 방법, 유방 자가검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 없음
		유방조영술 검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조영술 계획하고 있는 집단: 이익적 요인을 높게 평가, 장애적 요인을 낮게 평가
의학	조기발견	유방암 조기발견 비용-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효과 분석: 유방촬영술만 실시하는 것이 임상진찰만 실시, 임상진찰 후 이상자에 대해서 유방촬영술을 실시, 임상진찰과 유방촬영술을 병행하는 것보다 비용-효과적임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방자가검진 교육: 6개월후 유방자가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여성의 비율 높아짐
		조기검진 지식, 태도,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직원의 유방암 조기검진율: 89.3%(294명, 이중 16명이 재검진 받음) · 유방자가검진 매달 실시: 17.7%, 대중매체 통해 자가검진 기술 습득이 많았음

(Table 5-7) 주요 개념별 분석-자궁경부암

구분		주요개념	연구결과
학문분야	내용		
간호학	조기발견	Pap 도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 도말검사 참여정도: Pap 도말검사에 대한 긍정적 정서와는 정적 상관관계, 부정적 정서와는 부적상관관계 · Pap 도말검사 지속적 참여행위: 지각된 장애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검진 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지각된 장애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가장 큼
의학	조기발견	Pap 도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는 여성이 감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궁경부암 검진율 높음
보건학	조기발견	Pap 도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p 도말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 74.6%,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57.8% · 자궁암 검사를 받지 않는 위험군: 소득수준이 낮다고 인식, 상용 치료원이 없음,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50-59세 연령군, 미혼여성

IV. 논 의

암은 일단 발생하면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기 때문에 암 발생률과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암의 조기진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199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암정복 추진위원회와 암정복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암정복 10개년(1996년~2005년)이라는 계획을 세워 암 발생률과 암사망률을 줄이려고 하였으며, 2000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암센터가 설립되어 암에 대한 기초조사 및 암의 홍보, 교육, 조기진단, 암등록, 암환자의 전인적 진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암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움직임이 미흡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피부에 닿는 암예방 및 조기발견 관련 중재가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모든 암의 75% 이상이 예방 가능하다고 하였다(Cullen, 1986). 미국에서는 중앙협회와 국립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을 위한 7가지 식생활 지침과 6가지 생활 환경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은 국립암센터에서는 12가지 사항을 생활개선의 목표로 하도록 제안하였다. Bagga 등(1995)의 연구에서는 지방섭취를 총열량의 30%이하로 제한하고, 과일과 야채섭취, 곡류섭취를 증가시키고, 동물성 단백질섭취를 제한하고, 설탕 드레싱, 버터, 마요네즈와 같은 지방식품을 최소한으로 섭취함으로써 암발생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며,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다양한 야채와 과일의 섭취가 몇몇 암의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cis.nci.nih.gov). 그리고 Bernstein, Henderson, Hanisch, Sullivan-Hally와 Ross(1994)와 Bernstein 등(1998)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활동을 통한 이상적인 체중유지가 암 발생 정도를 낮춘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암발생율을 줄이기 위해 화학적 예방(chemoprevention)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유방암 예방을 위해서 tamoxipen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비타민 등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Nayfield, Karp, Ford, Dorr와 Kramer(1991)의 연구에서는 tamoxipen이 유방암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골밀도 저하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1992년 4월에서 1997년 10월까지 약 5년간의 Breast

Cancer Prevention Trial(BCPT) 연구를 진행한 결과 tamoxipen 복용군에서 유관이나 유엽의 상피내암 같은 유방의 비침윤성암이 50%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폐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Beta carotene을 투여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ATBC(Alpha-Tocopherol, Beta carotene)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 비타민 E는 전립선암을 34%, 대장암을 16% 감소시켰지만 Beta carotene 투여시에는 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현재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400개 이상의 화학예방 약물을 연구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암예방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암예방에 관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Kim(1995)은 조기진단과 합리적인 근치절제수술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암의 75-80%가 치유 가능하다고 하며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암 환자의 48%가 암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병원을 찾고 있으며,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병원을 찾는 사람도 27.5%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eng & Lee, 1987). 암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기검진 방법이 있는데, 즉 위암의 내시경검사, 유방암의 유방자가검진과 mammography, 자궁암의 pap smear, 직장·대장암의 잠혈검사와 직장 지두검사 등이 있으나, 폐암과 간암의 경우는 효과적인 조기검진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1993년 미국 중앙협회에서는 부위별 암 위험요인, 증상 및 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법에 대한 지침서를 제시하여 정규적으로 지침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American Cancer Society, 1993) 비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2002)에서는 암을 예방하고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까지 5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간암)에 대한 국가 조기검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표준 검진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1980년에서 2001년 6월까지 암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을 분석해본 결과 총 97편으로 나타났다. 97편중에서 1995년 이후의 논문이 70편(72.2%)으로 최근 들어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논문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Lim과 Hong(1997-a)의 연구에서도 1994년과 1997년 2월까지의 연구가 전체연구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Choi 등(1998)의 논문 분석에서도 1995년과 1998년 사이에 47.7%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전반적인 암 관련 연구가 1995년 이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설계별로 살펴보면, 조사연구가 55.7%로 가장 많으며, 실험연구가 35.0%였다. Lim과 Hong(1997-a)의 연구에서도 70.2%가 조사연구였으며, Choi 등(1998)의 연구에서도 조사연구가 69.8%이었으며, Smith와 Stullenbarger(1995)의 연구에서도 90%가 조사연구인 것으로 나타나, 암에 관한 조사연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WHO(1996)에 의하면 암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좋은 방법은 보건교육과 조기검진이므로, 적절한 보건교육과 조기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검증하는 연구 즉 실험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기검진의 방해요인과 한국인의 암 예방을 위한 생활양식에 대한 질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암 종류별로 보면 위암에 관한 실험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위암관련 위험요인을 명확히 밝혀서 이를 감소시키고자하는 위암 예방법과 위내시경검사 등의 조기검진의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자궁암에 대한 실험연구도 전혀 없으므로 자궁암 위험요인을 피하는 생활양식을 포함한 예방법과 pap 도말검사의 규칙적 이행을 돕는 중재 등을 실험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회지별로 살펴보면,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이 10편, 한국역학회지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예방의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의 순이었다. Choi 등(1998)의 연구에서는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이 10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박사학위논문 21편, 간호학회지 13편, 성인간호학회지 10편, 기타 5편의 순이었다. 앞으로는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박사 학위논문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임상간호의 발전을 위하여 임상실무자에 의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분석 연구들은 간호학 관련 논문이 47편(48.5%), 의학 관련 논문이 46편(47.4%), 보건학 관련 논문이 4편(4.1%)이었다. 간호학 관련 논문 149편을 분석한 Choi 등(1998)의 연구, 178편을 분석한 Lim과 Hong(1997-a)의 연구, 428편을 분석한 Smith와 Stullenbarger(1995)의 연구에 비하면 본 연구의 전체 논문 편수가 적었는데, 이는 암의 예방과 조기발견에 초점을 둔 연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간호학, 의학, 보건학 단독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들 학문분야뿐만 아니라 행동과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분야와 함께 하는 학제간

공동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Park & Park, 1995).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위암, 폐암, 간암의 논문들은 예방이 조기발견에 비해 많은 반면,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논문은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뿐이었다. 위암, 폐암, 간암의 예방에 관한 논문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암은 위암의 위험요인이 되는 식이를 제시하여 식생활을 조절하도록 하고, 폐암은 금연프로그램의 효과를 보여주기 금연을 권유하고 있으며, 간암은 B형 간염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암, 폐암, 간암은 조기 증상이 다양하여 조기진단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Kim et al, 1998), 조기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Jin, Kim, Cho & Kim, 1996), 또한 기침, 객담, 소화불량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Kim, et al, 1998: Song, Kim, Ryn & Hyun, 1994)으로 인해서 지나쳐 버리기 쉽다. 따라서 조기 진단율이 다른 암에 비해 낮은 편이다. 앞으로는 위암, 폐암, 간암의 예방에 대한 반복연구와 조기진단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조기 진단율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유방암과 자궁경부암은 조기검진에 관한 논문이 많은데, 유방암은 유방자가검진(BSE), 자궁경부암은 Pap 도말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방의 보전이 가능하여 신체장애를 극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미국 암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TNM 분류로 볼 때 병기 I에서 발견되는 유방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1%이지만 병기 IV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18%이고(Mayer & Solomon, 1992), 종양의 크기가 0.5cm이하일 때 5년간 생존율은 99%, 2-5cm 이하일 때 80%, 5cm 이상일 때 50-60%이다(Otto, 1994). 따라서 유방자가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여성 자신이 유방암 병소 발견에 주체적 역할을 하고, 촉진가능한 병소의 대부분(75% 이상)을 여성에 의해 또는 배우자에 의해 발견할 수 있으므로(Karen & Karen, 1996), 유방자가검진(BSE)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Pap 도말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Guzick, 1978: Meng, 1995), Kim 등(2000)의 연구에서는 아직도 우리 나라 자궁경부암 검진 수검율이 3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식기를 노출시키는 부인과 검진이라는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느끼는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프로그램 계획시 부정적인 정서와 검진시 직면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키는 배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조기발견에 대한 반복연구를 실시하면서,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예방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총 97편 논문 중에서 유방암이 25편(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폐암 23편(23.7%), 간암 17편(17.5%), 위암 16편(16.5%), 암 6편(6.2%), 직장·대장암 5편(5.2%), 자궁경부암 5편(5.2%)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연구논문이 적은 이유는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그러나 식생활 문화가 서구화 되어가면서 직장·대장암의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성 개방으로 인해 자궁경부암의 발생연령이 20대, 30대 젊은 연령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Meng, 1995), 직장·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보건교육과 조기진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앞으로 암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다양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검증연구와 타학문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 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1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 97편을 대상으로 연도별, 연구설계별, 학회지별, 암종류별, 주요개념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논문의 편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5~1999년에 49편(5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00년~2001년 6월까지 21편(21.6%), 1990년~1994년에 14편(14.4%), 1985년~1989년에 10편(10.3%), 1980년~1984년에 3편(3.1%)의 순이었다.

2) 연구설계별로 살펴보면, 조사연구가 54편(55.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실험연구 34편(35.0%), 기타(문헌고찰, 종설) 9편(9.3%)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학회지별로 살펴보면, 간호학 석사학위논문이 10편(10.2%), 한국역학회지가 10편(10.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예방의학회가 7편(7.2%), 지역사회

간호학회지 6편(6.2%), 성인간호학회지 6편(6.2%)의 순이었다.

4) 학문분야로 살펴보면, 간호학 관련 학회지에 47편(48.5%), 의학 관련 학회지에 46편(47.4%), 보건학 관련 학회지에 4편(4.1%)이 게재되었다.

5)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이 50편(51.5%), 조기발견이 43편(44.4%), 예방과 조기발견이 4편(4.1%)으로 나타났다. 암 종류별로 살펴보면, 위암, 폐암, 간암의 논문들은 예방이 조기발견에 비해 많은 반면,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논문은 모두 조기발견에 관한 논문이 많았다.

6) 총 97편 논문중에서 유방암이 25편(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폐암 23편(23.7%), 간암 17편(17.5%), 위암 16편(16.5%), 암 6편(6.2%), 직장·대장암 5편(5.2%), 자궁경부암 5편(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와 타학문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

2) 본 연구는 국내 암 예방과 조기발견에 국한된 것이므로 국제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향후 10년 정도의 단위로 암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연구경향을 밝히고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계속적인 분석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merican Cancer Society (1993). *Guidelines for the cancer related checkup: Recommendations and rationale*. CA-A Cancer J for Clinicians (Jan/Feb), 45.
- Bagga, D., et al. (1995). Effects of a very low fat, High fiber diet on serum hormones and menstrual function: Implications for breast cancer prevention. *cancer*, 76(12), 2491-2496.
- Bernstein, L, Henderson, E., Hanisch, R., Sullivan-Hally & Ross, R. K. (1994). Physical exercise and reduced risk of breast cancer in young women. *J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86, 1403-1408.
- Bernstein, L. et al. (1998). Use of oral

- contraceptives and risk of breast cancer in young women. *Breast cancer research & treatment*, 50(2), 175-184.
- Choi, S. H., et al. (1998).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0-1998. *J of Korean Acad of Nurs*, 28(3), 786-800.
- Cullen, J. W. (1986). Design of cancer Prevention studies. *Cancer Detect. Prev.*, 2, 125-138.
- Genovese, L., & Wholihan, D. (1995). The "VANAC team": Establishing a cancer prevention team. *Cancer Nurisng*, 18(6), 421-426.
- Guzick, D. S. (1978). Efficacy of screening of cervical cancer: A review. *Am J Public Health*, 68, 125-134.
- Jin, C. K., Kim, M. K., Choi, T. H., & Kim, Y. J. (1996). Comparison of medical care utilization between the patients who had gastric cancer. *J of Korean Acad Fam Med*, 17(3), 253-259.
- Karen, A. L., & Karen, I. C. (1996). Breast self-care practices in women with primary relatives with breast cancer. *J of Advanced nursing*, 23, 1212-1220.
- Kim, J. B. (1995). Treatment condition and the survival rate of Korean 5 cancer disease. *Korean Med Association*, 38(2), 154-164.
- Kim, S. Y., et al. (1998). Delayed diagnosis of primary lung cancer.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 45(4), 754-759.
- Kim, Y. B., et al. (2000). The influence factors on cervical and breast cancers screening behavior of women in a city. *J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7, 1-15.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1). *Summary results of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in 2000*. (<http://www.nso.go.kr>)
- Lerman, C., Rimer, B., & Engstrom, P. F. (1989). Reducing avoidable cancer mortality through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regimens. *Cancer Research*, 49, 4955-4962.
- Lee, E. O., et al. (1992). Analysi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70 to 1990. *J of Korean Acad of Nurs*, 22(3), 271-296.
- Lim, S. O., & Hong, E. Y. (1997-a). An integrative review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5-1997. *J of Wonju national college*, 25, 65-91.
- Lim, S. O., & Hong, E. Y. (1997-b).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 1985-1997.2. *J of Korean Acad of Nurs*, 27(4), 857-869.
- Mayer, J. A., & Solomon, L. J. (1992). Breast self-examination skill and frequency: A review. *Annals of behavioral Med*, 14(3), 189-196.
- Meng, K. H. (1995).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ervical cancer occurrence in Korean Females. *Korean J of epidemiology*, 17(1), 23-29.
- Meng, K. H., & Lee, W. C. (1987). A descriptive epidemiological study on cancer statistics in Korea based on published literatures on hospital cancer patients. *Korean J of epidemiology*, 9(1), 139-150.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1). *2002 year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http://mohw.go.kr>)
- Nayfield, S. G., Karp, J. E., Ford, L. G., Dorr, F. A., & Kramer, B. S. (1991). Potential role of tamoxipen in prevention of breast cancer. *J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 83(20), 1450-1459.
- Otto, S. E. (1994). *Oncology Nursing*. St. Louis: Mosby.
- Park, J. S., & Park, C. J. (1995). An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on pain reported in Korea from 1970 to 1994. *J of Korean Acad of Nurs*, 25(1), 30-44.
- Smith, M. C., & Stullenbarger, E. (1995). An integrative review and meta-analysis of oncology nursing research: 1981-1990. *Cancer Nursing*, 18(3), 167-179.

Song, H. T., Kim, C. D., Ryn, H. S., & Hyun, J. H. (1994). A Clinical Study of Early Gastric Cancer. *The Korean J of Gastroenterology*, 26, 789-799.

WHO (1996). *National cancer control programmes policies and managerial guidelines*. Seoul National University medical college cancer research institute.

<http://www.nci.nih.gov>

* 97편의 분석대상 논문 list를 구하시오자 하는 분은 055-940-2563으로 연락 주십시오.

- Abstract -

An Analysis of Nursing Research on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Reported in Korea from 1980-2001

Park, Jeong Sook* · Oh, Yun Jung**
Jang, Hee Jung*** · Choi, Young Hee****
Park, Eun A****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on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in Korea, in order to suggest a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on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for Koreans.

Methods : A total of 97 studies published from 1980 to 2001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year of publication, research design, journal type, cancer type, major study concepts, and findings.

Results : 1) The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had increased rapidly since the year 1995. 2)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design in the studies was the descriptive study design (55.7%). 3) There were 10 master's theses on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and 10 studies published in the Korean Epidemiology Journal. 4) When classified by the published field, 47 studies (48.5%) were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46 studies (47.4%) were published in medical journals, and 4 studies (4.1%) were published in public health journals. 5) The major topics of the studies were cancer prevention (51.5%), early detection (44.4%), and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4.1%). 6) Breast cancer was the most largely addressed issue in the studies (N=25: 25.7%), followed by lung cancer (N=23: 23.7%), hepatoma (N=17: 17.5%), gastric cancer (N=16: 16.5%), other general type of cancer (N=6: 6.2%), colorectal cancer (N=5: 5.2%) and cervical cancer (N=5: 5.2%).

Conclusion :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more studies on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in the future, and, particularly, experimental studies to exam the effects of intervention on cance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are considered necessary.

Key words : Cancer prevention, Early detection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Nursing, Keochang Provincial College
*** Part time instructor, Dept. of Nursing, Keochang Provincial College
**** Nurse of Dongsan Hospital